



## 금당계곡에서

박재현 (진주산업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이토록 아름다운 물은 처음 보는 것 같다. 가을이  
재결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시기라도 하듯 들녘을 따  
라 느리막 느리막 구불뚝 구불뚝 기어가는 평창강 그  
강에 주저리 주저리 매달린 개천들은 정말 바닥이 흰  
히 드러난 파리한 눈을 가진 여신의 모습과도 같았  
다. 금방이라도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고 싶은 금당계  
곡 그 곳은 명경지수(明鏡止水)란 말을, 산자수명(山  
紫水明)이란 말을 연상한대도 보지 않으면 상상이 가  
지 않는 맑은 너무나도 맑은 물이었다. 어쩌면 그 물  
은 속이 너무 깨끗해 맨 눈으로도 흰히 들여다보이는  
새우 속 같기도 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선녀의 모습과도 같았다.

내가 평창강에서 갈라진 작은 지류 금당계곡에 들  
게 된 것은 순전히 불알 친구 덕분이다. 실내 장식을  
요구하는 사람이 짓고 있는 통나무집도 볼 겸, 가을  
이 흐드러지게 털어 내는 가랑잎도 밟아보고, 갈빛  
물든 나뭇잎이 동동 떠가는 금당계곡 맑은 물에 어항  
도 놓아보고, 눈 시리도록 파리한 강물 바라보며 눈  
도 씻어보고, 마음도 씻어보고, 뻘알갈게 익어 가는  
산에서 하루를 보내면 어땡겠냐고? 거어 좋지! 두말  
할 이유가 무에 있누. 내친 김에 가자고. 달려가자.  
지화자 좋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통나무집에 별령  
누워 반짝반짝 별을 따야지.

산은 이런 산을 보아야 하고, 물은 이런 물을 보아  
야 한다는 친구의 말처럼 정말 버얼절게 불타는 산으  
로 둘러싸인 금당계곡을 소살 소살 구르는 물은 맑기  
가 그지 없고 비취빛까지 빛나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안으로 쭈욱 빠져드는 것 같은 희한한 마력에 그만  
풍덩. 언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보았던가. 금당계곡

맑은 물은 설악산 백담계곡에서나 보았던 그 비취빛  
물, 그것에 다름 아니었다.

자갈자갈 잔 자갈들이 널편하게 깔린 바닥 위에 꿈  
에서나 볼 법한 신선만큼이나 허이안 얼굴을 한 금지  
막한 바위가 떠억허니 버티고 선 것하며, 물가에는  
달뿌리풀이 바람에 휘영휘영 휘날리고 이에 질세라  
갯버들도 휘릭 휘릭 날리고. 나도 질세라 작은 돌 하  
나로 바람을 따라 풍풍풍 물수제비를 뜨고. 지쳐 스  
러진 돌이 이방인처럼 머문 자리엔 여뀌니 억새니 풀  
들이 분분히 널린 것 같지만 거기엔 자연의 오묘한  
질서가 자리잡고 있고, 그 아래 음을 틀고 살 물총새  
니 버들치니 갈겨니니 눈치니 풍풍풍 송송송 물수제  
비에 놀란 것 같지만 그래도 모다 행복해 보이기만  
해. 나도 덩달아 행복해.

우렁우렁 우렁차게 여울을 돌다가 널편한 자리에  
선 언제 우렁 우렁거렸냐는 듯 소살 소살 유유히 흐  
르는 맑은 물을 한 움큼 떠내어 마셔보니 시원하기가  
그만. 맛나기가 그만. 이 맛이 그 맛이야. 순간 작은  
파문에 놀라 화들짝 도망치는 버들치며 눈치며 모래  
무지며, 놀란 토끼가 눈을 하고 쏜살같이 내빼는 그  
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날렵한 필치로 그어낸 수  
묵 묵란의 느낌이라고 할까. 멀리 도망쳐 이젠 안심  
이라고 물살에 몸을 맡기고 느릿느릿 흘러가는 그들  
의 모습은 또 한지 위에서 수묵이 번져 가는 느낌이  
랄까. 두 손 모아 떠내면 손안에 다 잡을 것 같지만  
어찌나 그 놈들의 몸놀림이 빠른지. 내 느린 손아귀  
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어항을 꺼내  
얇은 물가에 넣어두니. 투명한 어항이 집이라도 되는  
양 한 마리 두 마리 쏘옥썩 쏘옥썩. 정말 많이도 잡히

---

는 걸. 그냥 구경만 해도 재밌기만 해.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 먹거리도 자연에서 구하고 쉼터도 자연에서 찾고 삶의 유희도 자연에서 맛보고.

여울여울 돌아 스멀스멀 기어가는 계곡 물이 평퍼짐 모래언덕을 만들면 아트막한 물에 아장아장 종아리를 걷고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을 보는 재미도 그만이라. 아이들아 놀아라! 이렇게 깨끗한 물에 종아리 담그고 마음껏 놀아라! 정말 아이들 놀이터로는 그만이라. 아이들은 모래둔덕에서 물장구치다 모래무지 잡다 정말 재미있어라 하고. 그 모양을 바라보며 한가로이 가을 바람을 맞는 재미도 쏠쏠하기만 하고. 하루 종일 물가에 앉아 버들치며 갈겨니며 눈치가 한가로이 유영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 중의 재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바람이 놀자하고 버들치가 놀자 하고 갈겨니가 놀자 하고 억새가 놀자 하고 구름이 놀자 하고 산이 놀자 하고 갯버들이 놀자 하고. 세상에 이처럼 좋은 친구들이 어디에

있어. 순식간에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 나는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이대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나는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밤 깊은 줄 모르고 그들과 노는 재미란. 아 물가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재미날 줄이야.

까만 하늘에 반짝반짝 은하수를 바라보며 우렁우렁 소살 소살 요동치며 장난치며 구르는 계곡물 소리를 듣는 재미는 오감이 시릿 시릿. 도시에선 폭주족 경보음 소리가 아무리 뽕뽕대도, 텔레비전에서 가수 누구누구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에 돼지 먹따는 소리로 지껄여대도 꿈쩍 않던 오감이 스멀스멀 근질거리기도 하고, 지릿찌릿 전기에 감전된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맑은 바람에 씻기운 눈으로는 온 세상을 다 볼 수도 있고, 까드득 까드득 온 밤을 새워도 하나 졸리울 것 같지 않는 시간. 그 밤을 나는 맘껏 누리고 있다. ●●